춘천 성시신문

The Chun Cheon Holy City News

발행인 : 박 상 호

2. 춘천선교대회 부흥과 변화를 꿈꾸며
3. 리더십혁명으로 하나님나라를 이땅에
6. 세상의 빛으로 존재하는 교회
8.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편안한 쉼터

성 시 비 전

교회갱신 · 부흥 · 복음화운동
교회연합일치운동
새로운 도시 모범시민운동
세계복음화 기도운동

www.holycity.or.kr

2006년 11월 1일

(1998년 9월 15일 창간) **제96호**

2006 임기를 마치며 전하는 감사의 마음



춘천기독교연합회장의 임기가 끝나게 됩니다. 두려움으로 맡았다가 부끄러움으로 끝납니다. 어수선하게 일만 저지르다가 이렇다 할 열매도 없이 임기를 마치니 부끄럽고 죄송할 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춘천기독교연합회의 방향성과 그 발판을 만들기에 노력했으며, 다소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들과 각 선교단체들이 호흡과 보조를 함께 해 주셨음을 깊이 감사드리며, 여기 동역했었던 임원들의 마음을 전합니다.

춘천기독교연합회장, 성시본부장 박상호 목사(춘천제일장로교회)

할렐루야! 2006년 한해를 돌아보면서 춘천성시화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주의 은혜가운데 진행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춘천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연합하고 달란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가는 구체적인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더 발전할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수석부회장 최현묵 목사(남춘천침례교회)

전년도 총무님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시작된 일이 생각보다 힘들고 어려운 것임을 느끼면서 조금이라도 회장님을 보필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총회를 앞두고 1년을 뒤돌아보면 아쉬움과 함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깊이 깨닫습니다. 감사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총무 박인관 목사(춘천광염교회)

어느 날 저는 온 우주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 임재와 사랑을 온 몸으로 느끼고 이 도시 가운데 전해야하는데, 그 일을 하기엔 한없이 부족한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아쉽고도 부족했던 2006년도. 그러나 더 나은 모습을 기대하며 주님께 이 도시를 올려드립니다.

서기 최상도 목사(사임교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낌없는 기도와 사랑으로 협력해주신 분들께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자에게 증책을 맡겨주신 주님께 송구스런 마음으로 감사를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 마음을 활짝 열고 춘천의 모든 교회와 기독교연합회, 각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큰 발걸음을 내딛읍시다.

부회장 박한병 장로(중앙성결교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히12:14)" 한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게으름과 불충한 것들만이 기억에 남습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합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부총무 정재호 목사(늘사랑교회)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한 점을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혁신도시문제로 춘천지역 교회와 성도들의 단합을 보았고, 춘천 성시화를 이룰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외고설립추진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는 한 우리 춘천은 미래가 있음을 기대해봅니다.

부총무 김기기 장로(석사교회)

희망의 2006년도가 시작되면서 연합회 발전을 기도하다보니 어느새 결산의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비좁은 사무실을 확장이전한 일, 선교대회를 잘 마무리하여 결산된 일, 전년도 임원들의 수고로 이월된 자산으로 묵은 부채를 정산한 일, 연합회산하기관 회원들을 초청 친교인사회를 치르면서 많은 지원을 요청받았으나 연합회 회계로 지급하지 못한 아쉬움을 남기면서 보다 완전 2007년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회계 마철규 장로(춘천제일장로교회)

이달의 말씀

시편 2장 8~9절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림이여 질그릇 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

· 기독교연합회와 모든 기관을 위해
총회를 앞두고 모든 기관에 새로운 비전과 함께 복된 일꾼들이 선임되며 지역의 성시화를 이루는데 더욱 힘쓸 수 있는 기관들로 연합되게 하소서.

· 강원외고의 선정과 비전을 위해
이달에 선정되는 외고유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합당하게 결정되고, 이에 참여했던 모든 도시에 하나님의 축복과 균형 있는 발전이 이뤄지게 하소서.

· 부정부패, 우상숭배 타파를 위해
시장과 각 기관장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시민들을 믿음으로 섬기며, 이 도시를 환폐하게 만드는 모든 악습들이 타파되고 바르고 정의로운 시민의식이 일어나 분열된 마음들이 하나되게 하소서.

· 성시 합창단의 창단을 위해
춘천을 대표하는 남녀합창단이 결성으로 문화와 예술분야의 믿음의 일꾼들이 연합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한 후원단체와 기관들이 일어나며 좋은 단원들이 선정되게 하소서.

· 중보기도운동이 활성화를 위해
기도의 네트웍이 이뤄져 춘천의 변화와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도록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이에 동참하여 춘천의 경제변화와 교육인프라의 구성과 영적부흥을 위한 믿음의 싸움에 연합하게 하소서.



MAIIM 춘천본부

이판호 · 윤영순 권사(석사교회)

춘천시 석사동 796-3(호산부인과 옆)

☎ 264-2900, 011-364-9233

아름답도록, 건강하도록,
사람에게 더 큰 자연을 권하는 마임입니다.

앞로에 마임이 '마임'으로 새롭게 거듭납니다.

특 집

"2006 춘천 선교대회" 부흥과 변화를 꿈꾸는 현장 속으로

춘천기독교연합회(박상호 목사)와 춘천성시화운동본부가 개최한 춘천 성시화를 위한 "2006 춘천선교대회"가 10월 8일~25일 부흥회를 기점으로 세미나와 문화행사 등이 다채롭게 열렸다.

이번 선교대회는 '하나되게 하소서! 곱을 구게 하소서! 변화되게 하소서!'를 주제로 시민들 속에 기독교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하며 춘천의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고자 3주 동안 풍성하게 진행되었다.



연합부흥회와 세미나

10.8(주일)~11일(수)에는 석사감리교회에서 이등현 목사(광주평화교회 담임)를 주강사로 연합부흥회가 열렸다. 연인원 4천여명이 모인 이 집회에서 이등현 목사는 교회의 연합과 일치에 대한 성경적인 고찰과 당위성을 역설하였다.

낮 세미나에서는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열렸으며 광주평화교회의 사례를 통해 실제적으로 어떻게 도시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며 교회의 연합을 이룸 것인가를 살피는 시간을 가졌다. 광주평화교회는 126개 이상의 참여적 소그룹을 가진 교회이다. 이 소그룹에는 은퇴목회자를 돕는 소그룹으로부터 호스피스 사역, 독고노인을 돕는 사역, 고아원사역 등 거의 모든 분야의 사역이 총망라되어 있다. 이러한 소그룹활동을 통해 지역사회가 복음 가운데 들어오는 통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목사는 적군사역과 아군사역이라는 독특한 개념을 주창한다. 아군사역이란 기존의 교회 내적인 사역을 말하고, 적군사역이란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역을 말한다. 이 두 사역의 적절한 조화와 균형이야말로 건강한 교회의 표지라고 이 목사는 역설하였다. 광주평화교회는 최근 교회 신축시 등일지역에 있던 작은 교회를 함께 신축하여준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는 동역자의식의 실천적 발로라 아니힐 수 없다.











다양한 문화행사들

'한일교류 음악의 밤'이 10월 13일(금) 오후7시 중앙감리교회에서 47명의 등경그레이스 합창단과 춘천중앙감리교회, 우두감리교회, 강촌감리교회의 찬양단이 공연과 예수찬양 선교단의 워십댄스가 펼쳐졌다. 이날 '고향의 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메시아' 등을 함께 합창하며 한·일 음악인들 간의 마음을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을 가졌다.

10월 14일(토)을 '청소년들을 통한 춘천 복음화, 청소년 찬양의 날(주관:예스컴)'로 선포하고, 평화교회, 광장교회 등 에스컴 회원교회 중고등부와 춘천 중고등학교 기독동아리 학생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낮12:30부터 명동에서 노방전도를 하였다. "믈이 바다 덮음같이" 찬양을 시작으로 평화교회 중고등부의 수화찬양, 춘여고 엘리에셀과 춘천고 엘리사의 워십댄스 공연을 가졌고, 500개 가량의 전도용품과 2천장 이상의 전도지도 시민들에게 나눠주었다. 또 오후 6시30분 춘천중앙성결교회에서 '에스컴프레이즈'로 청소년들이 함께 뜨겁게 찬양과 경배를 드렸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용감한 청소년들로부터 마침내 춘천을 뒤덮은 복음의 거룩한 물결이 흘러넘치는 복된 시간이었다.



이외 10월 9일(월) 오전9시 공지천 인조잔디구장에서는 측구연합신교회 주관으로 '연합회장배축구대회'가 열렸고, 10월 16일(월)~19일(목) 오후7시 나눔교회에서는 예수전도단 주관으로 이광임 사모, 정형섭 목사 초청 '기도전략세미나'가 지역을 바꾸는 기도란 주제로 열렸다.

10월 19일(목) 오후7시 춘천동부교회 소예배실에서는 직장선교회 주관으로 '제12회 직장선교연합회 찬양대회'가 강원대학교, 한림대학교, 월드비전, 춘천시청, 춘천교도소, 남양알로에, 강원도교육청, 농협강원본부 8팀이 참여하여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되는 시간을 가졌다.

'제20회 춘천연합찬양축제'가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명신) 주관으로 10월 21일(토) 오후6시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춘천지역의 12개 교회의 성가대와 1,000여명의 성도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20회를 맞이하여 최다참가한 춘천중앙교회(권오서감독), 은혜춘천교회(김주환목사)에 기념패를 전달하여 지역사회의 복음화를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하였으며, 지역의 교회·선교회·업체에서 장학금을 후원받아 지역의 아동·청소년 71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10월 25일(수) 오전10시 동부교회에서는 IVF주관으로 미국 에즈베리신학교 선교학 교수이자 세계적인 교회미래학자인 하워드 스나이더 박사를 초청, "미래대안교회가 온다"라는 제목으로 3개의 강좌를 열었다. 하워드 스나이더 박사는 첫 번째 강좌에서 교회의 참된 본질에 대해, 두 번째 강좌에서는 21세기 교회모델에 관해서, 세 번째 강좌에서는 총체적 선교에 대해 언급하였다.



춘천기독교연합회는 해비타 선교대회를 열면서 전시민의 신자화와 사회 전분야에서 크리스천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새로운 기독문화가 일어나 시민들 속에서 꽃피우며 열매 맺게 되기를 꿈꾸며 기도하고 있다.

[글. 편집부 최상도]

Habitat for Humanity Chuncheon

해 비 타 트

- 한국사랑의 집짓기 운동 연합회 춘천지회 -

집을 지어줘

우)200-030 춘천시 요선동 9-1
TEL : 254-0009 FAX : 254-8877
E-mail : chuncheon@habitat.or.kr





1) 춘천해비타트 건축 헌정
2006년 10월 21일(토) 오전10시 춘천 소망의마을 입주식을 실시.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 춘천지회 소망의마을 건축공사
• 시행기간 : 2006년 5월 9일 ~ 2006년 10월 20일
• 사업대상지 :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162-6
• 참여인원 : 국내·외 자원봉사자 2000명
▶ 건축 개요
• 사업규모 : 세대당 20 2평형(66.78m²), 4세대 주택 건설
• 대지면적 : 1816m²
• 건축규모 : 지상 2층 - 1동(4세대)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경량 목구조

2) 집고치기 사업 헌정 - 농촌교회 수해복구 기술 지원
• 장 소 : 정선군 석곡리 석곡감리교회
• 일 시 : 2006년 10월 17일(화) ~ 10월 19일(목)
• 참여인원 : 4명 - 박정훈 건축이사, 성석중 현장소장, 기술자 2명
• 공사내용 : 내부 벽체 및 천장 수리

3) 춘천지회와 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댐관리단과의 후원협약에 관한 사항
① 2007년부터 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댐관리단에서 2개동 8세대 주택 건립을 위한 현금 3억원을 지원하기로 협약하였습니다(2006년 10월 21일)
② 2006년 사랑의집고치기 행사로 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댐관리단과 협력하여 소양강댐 주변 2세대를 올해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 건축면적 및 구조 : 2세대 - 건평 12평 (방2개, 거실, 주방, 화장실) 철근콘크리트 + 조립식 구조
(2) 대상 위치 : 장춘배 -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77-18번지
이범우 -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189-2번지
(3) 토지 이용 계획 : 일반주거용지
(4) 실시 기간 : 2006년 10월 23일 ~ 2006년 12월 31일

♡후원계좌: 농협(예금주 한국사랑의 집짓기운동 춘천지회) 203 - 01 - 532101 계좌로 자유롭게 1구좌 3천원 이상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예수그리스도의 리더십 혁명으로 하나님나라를 이 땅 위에"

한국리더십학교를 섬기시는 이장로 교수(고려대 경영학과)와의 인터뷰입니다.





이장로 교수(고려대 경영대학원 원장, 한국리더십학교 교장)는 크리스천 리더십 개발과 사회 지도자 양성을 소명이라 여기고, 차세대를 위해 과감히 자신의 삶을 내던지신 분이다. "진정한 의미의 성공이란 크리스천 리더십을 개발하고,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들을 양성해서 사회 속으로 파송하는 일입니다. 한국사회와 교회부흥의 원동력은 크리스천 리더십 혁명에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 이 교수는 또 "그리스도인들은 사회 속에 충격을 주어야 한다"며 "다른 가치관이 있고, 다른 행동방식이 있고, 그 근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임을 알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사회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정책, 법과 제도를 성경적으로 재구성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 일을 위해서라도 크리스천 리더들을 양성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통일한국시대를 내다보며 리더십혁명을 꿈꾸는 이장로 교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섬김의 삶, 근면의 삶, 그리고 희생의 삶을 살라고 외치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교수님께서는 한국사회가 민주화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큰 진통을 겪었던 1980년대 격변의 시기에 기독복음운동의 불씨를 지핀 시대의 증인이자 일군이셨다고 알고 있다. 지금까지 섬겨오셨던 복음사역을 소개한다면?

나는 대학교수로서 캠퍼스 복음화에 가장 큰 소명의식을 느꼈다. 섬기던 고려대 복음화를 위해 1989년 고대기독학생연합회(고기연)를 창립하였다. 고기연은 고려대에서 활동하던 모든 선교단체가 대표자격의 임원을 파송하여 연합한 결성체였다. 고기연에서는 한달에 한번 연합예배를 드리고, 연합전도와 친양집회 등을 개최하면서 이단등아리가 캠퍼스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등시에 건전한 기독대학문화를 이루는데 노력하였다. 또한 서울대, 이화여대 교수님들과 함께 1988년 2월에 전국기독교수수련회를 가졌는데 이것이 지속되면서 전국기독교수연합회가 결성되었다. 이를 계기로 캠퍼스 복음사역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학원복음화협의회가 창립되었다. 한편 1990년대 들어오면서 경영분야의 전문적인 연구를 위해 만들어진 기독경영연구회가 있었는데 1996년 기독경영연구원으로 창립되면서 초대원장으로 섬겼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크리스천 리더십"
"한국리더십학교는 통일한국시대를 바라보며 통일한국시대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사람을 기르는 것이 궁극적인 비전."
"건강한 교회는 성도가 삶의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성취하도록"

현재 한국리더십학교를 섬기시면서 글로벌시각을 가진 기독인재양성에 온신의 힘을 쏟고 계신데, 그 설립배경과 성격은?

한국리더십학교는 2001년도에 "하나님나라가 이 땅 위에"라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되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크리스천 리더십이다. 초기 한국교회는 사랑과 섬김의 봉사로 한국사회가 변화되는데 주도적 역할을 감당했다. 복음전도뿐만 아니라 생활의 변화를 주도하면서 각계각층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를 배출했다. 이러한 아름다운 전통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교회는 사회적 영향력을 상실하고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되는 부패와 부정의 중심에 크리스천 지도자가 서 있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많은 불신자들이 교회를 외면하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고민했다. 이것을 해결할 대안이 무엇입니까? 1999년 미국의 윌로클릭교회를 방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실신한 크리스천 지도자를 양육하여 사회에 파송하라는 강력한 비전을 주셨고, 이것이 한국리더십학교를 창립한 동기이다. 현재 리더십학교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다. 처음에는 고대에서 시작했는데 현재는 장신대학에서도 장신리더십아카데미를 개설, 평신도지도자과정과 목회자지도자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것에 영향을 받아 횃불트리니티에서는 크리스천 CEO과정이, 명지대에서는 명지기독경영아카데미가 개설되었다. 많은 곳에서 다양한 형태의 리더십학교가 생겼으면 좋겠다.

한국리더십학교가 인재를 양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훈련요소나 지향하는 비전을 구체적으로 소개한다면?

하나님나라를 이루는데 있어서 리더십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본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세상을 변화시켜 오셨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넓은 의미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대해 지도자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처한 현재 위치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면 세상은 변화할 수밖에 없다. 한국리더십학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역사의식이다. 지도자는 역사의식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다. 대한민국의 역사에 있어서 분단은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오천년의 긴 역사적 안목으로 볼 때 통일한국의 성취는 필연적 목표고 분단은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한국리더십학교는 통일한국시대를 바라보며 통일한국시대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사람을 기르는 것이 궁극적 비전이다. 통일한국시대는 반드시 온다. 문제는 통일한국이 당면하게 될 구조적 문제를 염두에 두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통일한국의 정치, 경제, 국방, 외교, 복지 등 21세기 통일한국건설을 위한 성경적 마스터플랜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리더십교육뿐만 아니라 이미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도자들을 위한 리더십학교가 필요하다고 본다. 기존 리더십의 혁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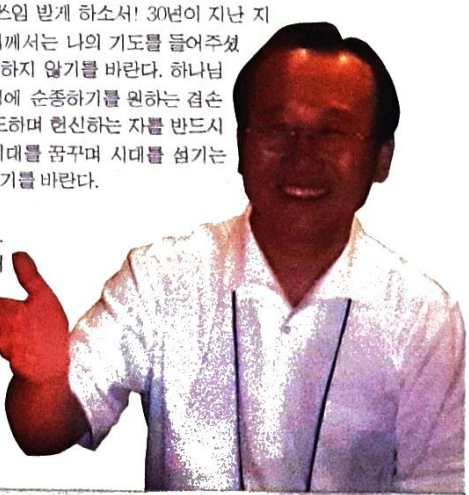
이미 활동하고 있는 지도자들을 위한 리더십학교도 있다. 이를테면 장로리더십학교, 교회지도자학교 등이다. 노회나 지방회에서 단기적으로 "리더십수련회"를 개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리더십의 변신 혹은 혁신은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가능성도 있고 한계도 있다. 그러나 나는 가능성에 더 많은 희망을 가지고 있다. 사도바울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혁신시켰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백을 통해서 자기혁신의 치열한 삶을 산 바울의 흔적을 느낄 수 있다.

한국교회의 교회교육을 경험하면서 평소 생각하시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책이 있다면?

한국교회의 교육은 그동안 목회자나 선교사와 같은 말씀사역자들을 양성하는데 중심을 두었다. 이러한 결과 한국교회는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제는 다음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21세기에는 건전한 평신도 지도자를 배출하는데 교육의 중심이 옮겨와야 한다. 그래야 목회자의 영적지도하에 세상에서 평신도 지도자들이 리더십을 회복하여 선한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다. 에베소서에 보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 말씀사역자의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다.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삶의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성취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목적을 가진 평신도 지도자 교육이 회복될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중심에 서게 될 것이다.

시대적 사명을 꿈꾸는 기독청년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나는 대학교 1학년 때 1969년도에 예수님을 만났다. 그 후 몇 년이 지난 1975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가?를 놓고 40일 동안 금식도 하며 철야기도를 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내 인생의 소명을 깨닫게 하셨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나라를 구하는 것이 바로 나의 사명임과 동시에 내 삶이 곧 복음의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는 깊은 자각을 하였다. 이후 하나님 앞에서 3가지를 결단하며 기도했다. 먼저, 실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게 하소서!(유학의 문을 열어주셔서 교수로 강단에 설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두 번째, 캠퍼스에서 교수로 청년들을 깨우는 선교사가 되게 해 주소서! 마지막으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시대의 사람들을 기르는 일에 쓰임 받게 하소서! 3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부디 작은 시련에 낙심하지 않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뜻을 품고 기도하며 헌신하는 자를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 통일한국시대를 꿈꾸며 시대를 섬기는 실력 있는 기독청년들이 되기를 바란다.



한국리더십학교(www.leadershipkorea.org)는 매주 1회 고려대학교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강사진으로 각 분야의 크리스천 전문가들이 편성돼 있다.

일 시 : 2006년 7월 27일
장 소 : 2006성서한국대회 무주리조트

진 행 : 정재호 이병철
글정리 : 정재호 /사진 김미경



한일선교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



조 영 상 목사(춘천출신 일본선교사, 일본C.C.C)

춘천의 지명도

복음전파를 위해 1세기에는 에루살렘, 안디옥, 빌립보, 에베소, 로마의 교회가, 그리고 종교개혁시대에는 함레, 비텐부르그, 제네바 등의 교회가, 근대에는 웨일즈, 런던, 옥스퍼드, 캠브리지, 브리스톨, 뉴욕, 시카고, 보스톤, 로스엔젤레스 등의 교회들이 크게 사용되었다. 1907년 1월에는 한국의 부흥운동과 함께 평양은 동양의 에루살렘이라 불렸으며, 교회들은 한국민족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2000년도부터 자연의 은총이 넘치는 호반의 도시 춘천은 한국에서도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친절하고 깨끗한 도시, 성시화 운동의 발상지로서 드라마 첫사랑, 겨울연가, 마라톤의 촬영지로 순애보를 전하는 도시로, 전세계에 부는 한류의 메카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남이섬과 춘천시가 지는 어느새 아시안들이 가장 가보고 싶은 곳으로 순수함을 갈망하는 이웃나라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도시가 되었다. 일본의 한 도시는 춘천명동을 그대로 재현해 놓았다. 이것은 춘천의 교회들이 기쁨과 사랑의 원형인 예수님의 복음을 원색적으로 전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춘천이 역사 속에 빛나는 영적인 부흥의 도시로! 하나님만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전인류에게 나눠주는 국제도시가 되도록 기도한다. 2년 전 춘천시청의 보고에 의하면 춘천인구 25만명 보다 많은 28만명의 일본인이 춘천을 방문했다. 복음전파가 힘든 일본인들에게 춘천교회가 마음껏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춘천교회들의 선교적 마인드

근대 선교사의 이비지로 부르는 윌리엄 케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은 선교사요 그리스도가 없는 마음은 모두 선교지"라고 했으니 춘천의 거듭난 전 성도들은 지구촌에서 찾아오는 외국인들을 향하여 선교사라는 정신을 가지고 선교적인 삶을 살며, 복음을 전할 절호의 찬스를 획득해야 한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렘20:9)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16:15)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고..."(골3:23)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마25:40) 하신 말씀처럼 누구든지 외국인이 춘천을 방문하면 거듭난 시민들의 친절하고 친절하며, 정직하고 겸손하며, 기쁨이 가득 찬 삶을 접하게 되고, 예수님의 섬김의 사랑을 받아 성도들의 인격에 감동하고,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발하게 되는 세계선교의 현장이 될 것을 기도한다.

물의 국제퀘스티발, 마임퀘스티발, 국제인형극제, 애니메이션 퀘스티발, 극제연극제, 국제미라본대회, 한류관광 등 수 없이 춘천을 찾아오는 외국인들에게 생활전도로부터 친구삼기 등 전략적 전도, 신앙훈련 프로그램을 구상하면 좋겠다.

일본인들의 춘천방문사역의 사례

3년 전에 30여명의 일본 교계지도자들과 제1회 성시화운동 견학투어를 가졌다. 춘천의 교회 지도자들과의 만남을 갖고, 성도들 가정에 민박을 하면서 일본지도자들은 각 도시의 종합선교의 꿈과 비전을 가졌다. 소규모지만 4도시에 일본인 성시화 운동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시민연합기도운동과 연합전도운동이 3도시에서 전개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겨울연가전도여행을 4번 기획하여 100여명이 춘천을 방문했다. 지난 10월 13일에는 47명의 동경그레이스 합창단이 한일합창제를 열기까지 발전하였다. 이들은 성도들의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경험했고, 기도회와 예배에도 참석하면서 복음을 처음으로 듣고 기독교인의 사랑에 감동을 받아 성공적인 프리에반젤리즘의 터치가 이루어졌다. 선교사인 나는 그들을 지금도 지속해 활로입을 하며, 효과적인 전도, 제자훈련을 하고 있음에 감사한다(협력해 주신 우두감리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소양제일성결교회 홍천희망교회에 감사드린다). 지금까지 20여명이 예수를 믿고, 2명은 세례까지 받았으며 기존 신자들은 새벽기도, 금요심야기도, 주일예배, 세미나 등을 통해 성령충만함과 재헌신을 경험했다. 일부는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지 못하지만 선교사와는 지속적인 인간관계를 맺고 있기에 언젠가는 100%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일본교회의 지도자들이 될 것을 기대한다.

구체적인 제안들

1) 일본에서는 춘천이 인기가 많아서 춘천에서 온 사람이면 특별환영을 받는다. 춘천교회들이 청소년 대학생 팀별로 1주간-3주간정도 봉사할 각종 단기선교팀을 연중 보내주기를 바란다.

2) 춘천출신 장기선교사(전문인선교사, 목회자선교사)를 많이 일본에 파송해 주기를 바란다. 전국731시중에 15시에 1,795정.촌 가운데 1,152정.촌(군단위)에 교회가 하나도 없다. 인구2만명 이상 76도시에 교회가 하나도 없다. 목회자 없는 무목교회도 전국 500여곳 있다.

3) 3개월, 6개월, 1년간 일본어를 배우면서 일본교회를 돕고, 선교를 준비할 장래의 헌신자들을 언제든지 환영한다. 저렴한 생활비로 지역교회에 협력자로 봉사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선교관을 제공하고, 이문화적응훈련 등 베테랑 선교사의 멘토링을 받도록 해준다.

4) 춘천 곳곳에 일본인들이 살고 있다. 관광안내로 자원봉사자로 교사로 유학생으로 장기체제 하는 분들과 관광으로 단기간 방문하는 일본인들을 위해 좋은 일본어 전도지료를 준비하여 언제든지 전해줄 수 있기를 바라며, 기회가 있는 대로 홈-스테이 프로그램을 최대로 활용하여 친구관계와 영친관계를 맺고, 장기적인 일본인 양육에 참여하길 바란다. 아울러서 일본어를 공부하신 교수님들이나 신도리더들이 소그룹을 만들어 일본어 성경읽기, 일본어찬양모임, 일본선교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지면 좋겠다. 서울에는 현재 일본어 예배드리는 곳이 9곳이 있다. 고향을 떠난 나그네 일본인들이 교회나 선교단체를 통해 초교파적인 공동체로 서로 네크워킹이 되면 큰 영적인 모멘팀이 이뤄지게 될 것이다.

5) 일본으로 출장오는 크리스천 전문인(음악,교육,법조,언론,상사주재원,외교관,의료,체육,무용)들이 언제든지 일본 교회에서 간증하고 특별집회를 인도하며 봉사할 수 있으니 은사를 사용하여 선교의 기회를 극대화하길 바란다. 한국요리교실도 크게 사용되고 있다.

6) 춘천시와 일본의 각종 문화축제, 국제문화교류행사에 양국의 크리스천들이 적극 참여하여 시민사회의 리더가 되고, 각종 사역에 영향력 있는 인력을 상호 공급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 · 일교류 음악의 밤

[기타 문의는 yongsangjo@hanmail.net 조영상 일본선교사 앞으로 요함(Tel 090-9343-7584)]

제시뉴욕 · 레모네이드
럭셔리한 아름다운 멋

결혼예복 · 숙녀복 전문
패 · 션 · 리 · 더 제시
모녀가 함께 입는 명품
많은 연예인이 즐겨 입는 명품
제시뉴욕 본점
대표 전 순 천 집사(순복음춘천교회)
☎ 252-7262
위치 조양동 신한은행강원본부 앞

이전감사예배
사암교회
"희망의 증거가 되는 교회"를 표방하는 사암교회가 이전감사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1989년 5월, 춘천중앙교회와 IVF, 이른이전도협회 등의 개척후원으로 동내면 사암리에 설립되었던 본 교회가 거두리로 이전하여 이전감사예배를 드리게 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일시: 2006. 11. 26(주일). 오후 4시.
◆ 장소: 동내면 거두리 사암교회(부영ⓐ와 초록지붕ⓐ 사이)
◆ 초청: 최상도 목사와 교우일동

거룩한 사람, 거룩한 땅



정 형 섭 목사(크리스천멘토링센터 · 예수전도단중보기도학교)

오늘날 전 세계는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들은 급속도로 늘어나고 무려 1000만 이상의 도시도 생겨나고 있다. 도시에 하나님의 전략이 필요하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따라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도 동일하게 된다. 사람과 땅은 서로 연관 관계 가운데 영향을 받는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나안 땅을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게 된 것도 사실은 애굽 가운데 역사하는 영적인 세력들을 파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었다. 출애굽할 때 애굽에 일어났던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신들을 파하는 싸움이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한, 거룩한 땅으로의 회복"
"지금 바로 자신의 땅을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하신 것은 첫째로는 나를 위함이지만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땅에 사는 것은 이 땅을 위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인 것이다.

하나님이 땅을 거룩하게 만드셨지만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 더러워지고 있다. 우상숭배와 피흘림과 성적인 타락을 통해서 사단은 땅을 더럽히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

우상숭배는 사단의 활동을 불러들임으로써 그 땅을 황폐하게 하도록 문을 여는 것이다. 결국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무고히 피를 흘려 죽이는 일들을 자행하게 된다.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거짓된 위로를 받아들임으로써 성적인 쾌락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순서적으로 뒤따르고 있는 것을 본다.

열왕기상 11장에 솔로몬의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온다. 솔로몬의 아내가 무려 1000명이나 된다. 이방의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그 이방의 아내가 가지고 온 우상을 위해 산당을 만들어 준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합법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도록 통로를 만들어 준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둘로 나뉘고 우상숭배로 끊임없는 싸움을 하게 된다.

이러한 일은 오늘날 수많은 도시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다. 우상숭배와 성적인 타락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필자는 여러 도시를 리서치하고 영적도해를 통해서 영적이해를 갖고 있었다. 도시들마다 공통적인 것이 있었는데 무당집, 점집들이 밀집하고 있는 곳과 사창가는 늘 연결되어 함께 있었고 또한 가난한 지역이었다. 화려하게 보이지만 가장 황폐한 곳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러한 땅을 내어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 그 땅에 살게 하셔서 그 땅을 거룩하게 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먼저 자신이 우상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무고히 흘린 피를 오히려 생명으로 회복하도록 바꾸는 것이다. 또한 거짓된 위로가 아닌 진리의 자리에 서는 것이다.

최근 변화3편을 보면 남태평양에 위치한 '피지'라는 나라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 수 있다.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먹을 수 없었던 물이 깨끗한 물로 바뀌었고, 나무의 열매들이 작았던 것이 커다란 열매로 열매 맺고, 폭력과 범죄가 사라지면서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았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많은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진리의 원칙이 사회속에 적용되는 것을 보면서 도전이 되었다.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한국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나는 믿는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소듬 성이라 느낀다면 지금 바로 자신의 땅을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것이다.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을 찾고 계신다. 거룩한 백성이 일어나서 그 땅 가운데서 영향력을 미치도록 부르시고 계신다.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 땅 가운데 실제적인 변화를 주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일으키고 계신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계신다.



춘천 성시합창단 창단

춘천홀리클럽(회장 이학규장로)은 춘천 성시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춘천 성시합창단'을 창단하게 된다.

혼성으로(성악 남자20명 여자30명) 구성되는 춘천 성시합창단은 기독교인이라야 하며 성악적 재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연습 및 공연시간에 헌신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회장 이학규장로는 "춘천 성시합창단은 음악적 소질과 기능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봉사정신과 선교적 사명감을 가지고 모여서 기쁘고 즐겁게 주님을 찬양하므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세련되고 화합된 찬양을 불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와 집회에 찬양으로 은혜를 나누며 찬양을 통해 춘천 성시화운동의 활력소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춘천 성시합창단은 11월 13일(월) 오후 7시 석사감리교회에서 창단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할 예정이다. 춘천 성시합창단의 아름다운 찬양이 춘천 땅에 울려 퍼지기를 기대해본다.

[글 편집부 / 문의 성시본부 256-1260 | 이학규 017-370-4831]

몸소리 워십댄싱 선교단원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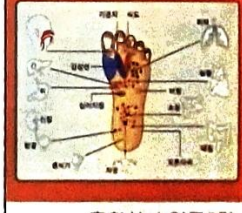


선교단 리더 한 혜 영 (갈릴리감리교회)
• 여호수아 워십댄싱 신학교 졸업
(워십댄싱 지도자 자격)
• OMD 미션댄싱 아카데미 과정
• 몸소리 워십댄싱 선교단 설립

○예배 훈련을 통한 워십댄싱 선교훈련교육
○대상 : 워십댄싱에 비전을 가지고 선교단원으로 활동하며 복음전하기를 원하는 분.
○시간 : 매주 월요일 오후 8시~9시
○장소 : 우석초교 정문 옆 경원대 태권도장
○문의 : 263-6022, 017-374-2440

원적외선 기능성 수제화 엘파로스

편한 발 즐거운 인생 엘파로스가 지켜드립니다!!!



◆ 엘파로스(ELPHAROS)는 족부반사구건강법과 인체공학적으로 설계 제조된 기능성 수제화입니다.
◆ 엘파로스는 평발, 까치발 등 잘못된 발과 척추교정에 도움을 주어 발, 다리, 허리를 편하게 해드립니다.
◆ 국내 최고의 발건강관리전문가의 자문과 권위 있는 정형외과원장의 추천을 받은 이주 좋은 신발입니다.

※ 대리점 및 취급점, 판매하실 분을 모집하오며 그밖에 문의사항은 홍장상담도 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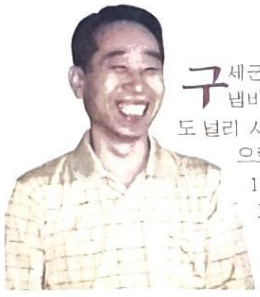
춘천시 소양로2가 서부시장 상가1층 (http://www.sukryu.com)
이 승 철 실사 (춘천성광교회) ☎241-5143, 011-9792-0591

탐방 I



세상의 빛으로 존재하는 교회

의미 있는 교회탐방순서로 구세군 춘천교회(이재우 사관)편입니다



구세군은 연인원 3만여 명이 참여하는 블우이웃을 위한 '자선냄비' 사역으로 유명한 교회이다. 이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사랑을 받아 온 구세군은 교회로서보다는 구제사역기관으로 더 알려져 있기도 하다. 구세군 춘천교회는 지난 1937년에 칭립된 이래 일제치하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도 이 시대 빛과 소금의 사역을 잃지 않은 아름다운 교회이다. 내년으로 칭립 70주년을 맞이하는 구세군 춘천교회. 그 선한 발자취를 함께 나눠보고자 한다.

구세군

구세군 교회는 영어 명이 '구세군'(SALVATION ARMY)이다. 영어 명에서도 드러나듯 구세군의 모든 조직은 군 조직과 같다. 구세군 신학교는 '구세군사관학교'로, 목사는 '사관'으로, 구세군 교회는 '구세군영문'(CORPS)으로 불린다. 세례식은 '병사입대식'으로, 학습세례식은 '예비병입대식'으로 불린다. 헌금마저도 '탄약금'으로 불리고 있으니 모든 것이 군 조직과 같은 것이다. 그렇다면 구세군 교회의 모든 운영원리는 강압적(?)이고 군대식일까? 아니다. 구세군 교회는 오히려 그 어떤 교회보다도 주님의 사랑의 군대로 불리기를 기뻐하며, 긍휼의 군대로 불리기를 원한다. 구세군 자선냄비의 상징성이 이것을 말해준다.

구세군 자선냄비의 기원은 1891년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거슬러 올라간다. 추운 겨울 어느 날 배 한 척이 파선 당하여 난민들이 생겨났음에도 경제불황이었던 당시, 시에서는 그들을 위해 도울 예산이 없었기에 난민들은 추위에 떨며 굶주린 채 지내야만 했다. 당시 구세군의 여사관(여목사)이었던 조셉 맥피가 이를 안타까이 여겨 오클랜드 부둣가에 '사랑의 솥'을 걸어놓은 것이 시발이 되었다.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 세벽까지 고민하며 기도하던 한 사관의 아름다운 마음이 오늘날 전 세계 119개국의 자선냄비의 출발점이 된 것이다. 한국 구세군의 자선냄비는 세계적 공황이 시작되던 1928년에 서울 명동 거리에 자선냄비를 설치하고 불우이웃을 도운 것이 최초의 기록으로 남아있다.

춘천교회와 이재우 사관

구세군 춘천교회는 일제치하 1937년 9월에 문을 열었다(칭립기념일: 1937.9.26). 내년으로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는 춘천교회는 해방 전후의 격변기와 한국 전쟁의 회오리 속에서도 춘천 인근지역의 빈민구제와 복음전파를 위해 지금까지 숨 가쁘게 달려왔다.

담임사관인 현 이재우 사관(참령 계급)은 대전이 고향이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이 사관은 어린이주일학교와 학생부를 거치면서 주님에 대한 부르심을 강렬하게 느끼게 된다. 그가 처음 주님 앞에 자신의 전 생애를 드리기로 결심한 것은 중학교 2학년 시절. 그 뒤로 한결같이 주님을 섬겨왔다. 이재우 사관이 춘천에 부임한 것은 지난 2005년 봄. 구세군의 임직(任職)과 부임(赴任)방식은 개 교회주의를 극복한 사례로 유명하다. 다른 교파와 같이 개 교회가 주체가 되어 인기가 있는 목사(사관)를 모셔오는 방식이 아니라 본부차원에서의 깊은 기도와 부임하는 사관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파송을 받는 방식인 것이다.

"사회적 약자, 빈민, 작은자를 소중히 여기는 구세군 교회"

"춘천지역 12월 13일 부터 명동과 이마트 등에서 사랑의 종소리가 울리게 된다."

춘천에 부임하기 전 서산에서 8년을 사역했던 이 사관은 서산 지역 복음화운동과 성시화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바가 있다. 온유하면서도 등시에 의욕적인 사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이재우 사관은 이전의 그 어떤 사관보다도 성도들의 화합과 사회봉사, 교육사업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 사관은 부임 첫 해 명동 및 주요 거리에서 실시한 연말 자선냄비 사역을 통해 1600여만 원이 모금되었다고 밝힌다. 재벌들의 소문난 기부금과는 달리 단 10여 일의 손수한 가두모금(募頭募金)으로서 푼돈 푼돈이 모인 것을 생각하면 이 헌금은 하나님 앞에서 적지 않은 액수임이 분명하다. 올해는 전국적으로 연인원 3만여 명이 가두모금봉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며, 춘천지역은 12월 13일부터 24일 성탄전야까지 명동 입구와 이마트 등에서 2천만 원을 모금목표로 사랑의 종소리를 울리게 된다.

구세군 춘천교회는 그 역사만큼이나 교계에 훌륭한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해냈다. 국내외적으로 존경을 받았던 김석태 한국 사령관이 바로 춘천교회 출신임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현 진광표 사령관의 사모 유성자 씨도 춘천교회 출신인 것이다. 사회적 약자, 빈민,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면서도 복음주의 전통을 잃지 않고 외길을 걸어온 구세군 교회, 그리고 구세군 춘천영문. 이 아름다운 교회의 정신과 뜻이 더욱 널리 메아리쳐가기를 빕이 마지않는다.

[취재 최상도, 사진 김미경]









앤투어 ntours
● 할인 항공권 전문
● 전세계 호텔 예약
● 여권 및 비자 업무
● 국내 · 외 여행 알선 (수학 · 졸업 여행)
● 배낭여행 · 어학연수
● 전세 버스 알선
● 신혼여행
● 유로패스/JR패스 예약 및 발권
● 해외선교 후원
대표 김 지 현 집사 (춘천동부 교회) 011-9057-3946
TEL:244-7400 도청 밑에 위치

SSO TOTAL DESIGN
쏘인테리어
교회건축연구소
대표 권 승 갑 장로 (제일장로교회)
033-242-5573 / 018-330-0433
1 OFFICE : 춘천시 퇴계동 891-1 대원B/D 7F
2 OFFICE : 춘천시 효자3동 607-2
STUDIO : 춘천시 서면 당림 1리 81-5

| 역사자료

강원도 교회 창립 약사 (略史 3)



강원기독문화연구소 대표
김 기 대 장로
(춘천중앙감리교회 원로)



1925년건립 구지 예배당



김연호 목사
65주년기념 예배당건립



곽철영 목사
85주년기념 거도원 건립



권오서 목사
100주년기념 예배당건립

1. 춘천의 개화(開化) 시초와 형세(形勢) (1880년~1910년)

춘천은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내에 위치하여 있고, 서울에서 동쪽으로 80km 떨어진 우리나라 중심권의 도시로 전 면적의 76%가 산지(山地)임으로 산수가 수려하여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곳이며, 소양댐 춘천댐 의암댐 등 인공호수로 인한 관광자원도 풍부하고 전국에서 오염과 공해가 적은 쾌적한 주거지역으로 소문나 있다. 조선조 후기에 간행된 택리지(擇里志)에는 우리나라에서 사람 살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평양, 의성, 춘천을 꼽고 있음도 이를 증명해 준다. 옛 신라시대에는 우수(牛首), 고려 초에는 춘주(春州), 이조 태종 13년에는 춘천(春川)으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렀다(춘천시청 홈페이지에서 발췌).

1880년 중반에 신미양요 병인양요와 운양호사건(프랑스,미국,일본 군함 침입사건)으로 조정에서는 척화론과 개국론으로 들끓을 때, 춘천에서는 유생들의 위정척사론과 나라를 근심하는 우국론과 의병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이러한 분위기는 1910년 한일합방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계속하였으나 미국 선교사와 일본인들이 춘천을 비롯한 강원도 도심지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문명과 새 문화가 일기 시작하였다.

2. 춘천중앙감리교회의 창립 약사(1898년 4월)

춘천중앙교회는 이조말과 일제시대, 그리고 6.25 사변을 겪는 동안 교회창립의 정확한 기록을 갖지 못하다가 1970년 김연호 목사가 감리교 총리원의 기록에 의하여 1906년으로 창립일을 찾았고, 그 후 1980년 곽철영 목사가 미국 선교사 보고서를 인용하여 1902년으로 수정하였다. 1988년 권오서 목사가 39세에 부임하여 교회성장을 이루면서 교회 건축부지 1만5천6백78평을 매입하여 "교회창립 100주년 기념예배당"으로 연건평 2000평의 본당을 건립하여 2001년에 입당하고, 2002년에 "교회창립 100년사"를 발간하려고 감리교신학대학교교수이며 종교교회사 전공인 이덕주 목사에게 집필을 의뢰 하였던바, 집필자가 미국 감리교 선교본부에서 영문으로 된 선교사 보고서를 읽고 "강원도 기독교의 전래 역사와 춘천중앙교회의 창립연대"가 잘못 알려진 것을 발견하여 집필을 늦추면서 고증과 기록의 정확함을 검토하는 역사포럼을 개최하고 춘천중앙교회의 창립년도를 1898년 4월로 수정하게 되었다. 이 근거는 "1897년 미국 남감리회가 강원도 선교를 맡기로 결의하여 서울 광희문교회 나봉식과 정동렬을 매서인으로 강원도에 보낸 연대가 1898년 봄이고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춘천의 퇴송골(현, 석사동)에 신앙공동체가 생겨 강원도 지방 개척선교사 무스 목사가 속회를 조직하였다"이다. 이로 인하여 춘천중앙교회는 100년사 발행이 지연되었고, 현재 마무리 편집을 함으로 2007년 봄 교회창립 108주년을 맞아 『춘천중앙교회의 역사』 출판기념 감사예배를 드리게 된다(기록에는 철원 김화 새술막과 춘천에 같은데 매서인 활동이 있었다고 하나 새술막교회는 현재 없음).

<춘천중앙감리교회 100년사 참조>

춘천중앙교회 창립 주요약사

•1898년: 광희문교회 나봉식,정동렬, 춘천지역권서 활동	•1971년: 아폴로우주선 모형예배당 건립(김연호목사)
•1901년: 춘천퇴송골(현,석사동) 신앙공동체 속회조직	•1987년: 오월리 기도원 증개축 봉헌 (곽철영목사)
•1902년: 이덕수전도사 초대담임자 초가5칸 교회건립	•2001년: 교회창립100주년기념예배당건립 (권오서목사)
•1925년: 마이시 선교사 요선동에 "ㄱ"자모앙교회 신축	•2002년: 춘천중앙교회 창립역사 바로알기 포럼 개최
•1955년: 6.25전쟁 후 복구비지원으로 옥천동교회 건축	•2004년: 선교교육관 입당 및 조형물 건립(1250평)

다음호에 계속

| 영혼의 양식

히브리서 7:20-28

예수님을 힘입어



권기찬 목사
(예담교회)

히브리서를 받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보마징부와 유대인들의 심각한 박해에 못이겨 박해를 받지 않아도 되는 유대교 신앙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따르고 옛 제사법을 따르는 신앙이 원줄기니까 별 상관없지 않을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제사장 사역이야말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개종하기 전에 알았던 그 어떤 제사장들의 사역과도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것이므로 옛 것에서 눈을 떼고 주님을 힘입어 온전한 구원을 얻으라고 권면합니다. 왜 예수님을 의지해야만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맹세로 된 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세습적인 아론계통의 제사장직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맹세에 의해 세워지신 것입니다(시110:4). 하나님의 맹세에 의해 세워지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을 하나님이 보증하신다는 말씀이며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맹세를 이루셨으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로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영원합니다. 아론계통의 제사장직은 죽음으로 지속적인 사역을 하지 못하고 자녀에게로 계승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유한한 존재이며 그들이 행하는 제사가 불완전함을 나타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속죄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 항상 짐승의 피로 자기 죄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도 역시 불완전한 인간으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순결하고 흠 없는 자신을 십자가에 제물로 드려 단번에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으며 부활하여 영원히 사시면서 우리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사역을 지속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은 지금도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힘입는 자들의 죄를 씻으시고 온전히 구원하셔서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이렇게 자신을 힘입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분을 힘입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힘입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 자신이 너무 잘나서, 때로는 자신의 삶에 대한 주님의 능력을 불신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요즘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버드 박사로 장래가 보장되던 분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몽골선교사로 떠났다는 사실 때문에 감동을 줍니다. 이런 삶에 의해 우리 눈에 좋아 보이고 칭찬받는 가치나 대상들이 경배의 대상으로 자리 잡아 주님을 힘입지 못하게 하는 것을 경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우리 마음에서 우상노릇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결코 그 자리를 내주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건드리면 죽을 것처럼 반응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바꾸지 않는다면 눈에 띄는 긍정적인 가치들보다 더 우리의 우상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있고 어디에서나 작용하고 있는 '자기 패배적인 생각들'입니다. 내 마음에 들어앉아 '난 안돼, 난 못해, 어쩔 수 없어' 등과 같은 소리로 주님을 힘입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지속적으로 찾아드는 감정과 생각 즉 우울, 불안, 두려움, 짜증, 낙심, 실패감, 부적절감, 비난 등이 나를 장악한다면 틀림없이 그 순간 나는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자는 주님을 힘입지 않게 되고 온전한 구원을 맛볼 수 없습니다. 내 능력을 의지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 연민을 즐기던 것들도 다 내려놓고, 지금도 나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읍시다!

"춘천 성시신문" 과 "강원 기독문화연구소" 발전을 기원합니다.



담임 권 오 서 감독

1978 감리교신학대학교대학원 졸업(M.Th)
1986 미국 클레아몬트 목회학 박사(D.Min)
1988 춘천중앙감리교회 제26대 담임목사
2000 강원도총기독교연합회 초대회장
2002 기독교대한감리회 동부연회 감독
2006 감리교 장기발전위원회 위원장

춘천중앙교회
Chuncheon Central Church

새 역사를 열어가는 교회
2006년은 예배성공 인생승리



교회창립일 1898년 4월 첫주

http://www.chmchurch.org
200-943 춘천시 퇴계동 202 ☎ 033)259-3000 Fax : 033)252-3084

好好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편안한 쉼터

호호산후조리원 김민영 집사편(춘천제일장로교회)입니다.





출산의 기쁨과 행복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출산 후 아기의 돌봄은 물론 산모의 몸조리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과거에는 대개 친정이나 시누이의 몫이었으나 노령인구의 취업 등으로 점점 여의치 않아지고 있다. 그래서 근 몇 년 사이에 새롭게 부상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산후조리원이다.

병균에 예민한 아기나 정신과 몸이 민감해진 산모를 돌보는 일은 쉽지 않다. 그로 인해 심심치 않게 매스컴에 자주 오르내리기도 한다. 누구나 쉽게 뛰어들기 어려운 일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산모와 아기를 돌보는 호호산후조리원의 김민영 집사의 삶을 엿보려고 한다.

기도를 통해 만난 하나님

충남 홍성이 고향인 김민영 집사의 모친께서는 부친의 건강문제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춘기 시절이었던 김 집사는 모친의 권유에 못 이겨 억지로 교회에 따라나서곤 했다고 한다. 과거에 누구나 가질 법한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가 그녀를 방해했던 것이다. 그러던 중 고등학교 3학년을 마무리하던 즈음에 모친께서 부친을 모시고 기도원으로 갔을 때의 일이다. 당시 김민영 집사는 아버지를 위해 나도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당숙모와 함께 교회 부흥회에 아침저녁으로 참석하여 최선을 다해 울부짖어 기도했다고 한다. 이것이 처음 자발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졸업 후 서울로 올라와 직장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다. 청년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던 교회에서 교회, 직장, 가정을 오가며 적극적인 신앙생활에 임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한 달에 한 두 번은 꼭 삼각산으로 철야기도를 다닐 정도였단다. "그때는 세상에는 관심이 없었어요"라며 그때의 신앙을 되뇌인다.

32세에 당시로서는 늦은 나이에 남편 박종섭(현 춘천제일장로교회 안수집사)을 만나 결혼하게 된다. 지금은 슬하에 세 자녀(아들2, 딸1)를 두고 있다. "지금 뒤돌아보니 청년시절 기도했던 것이 조목조목 다 응답된 것 같아요"라며 기도에 구체적으로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시어머님은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기도의 어머니셨고, 친정어머님은 목회자를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한 분이었다고 한다. 신앙의 대를 이은 김민영 집사에게 기도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였다. 그것은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도 마찬가지이다.



새로운 일로 인도하신 하나님

청년시절 결혼 후의 모습을 그릴 때, 가정에서 남편과 자녀들을 뒷바라지하는 현모양처의 모습을 꿈꿨다. 이렇게 사업에 뛰어들것이라는 생각은 해 본적이 없다고 한다. 그러던 김민영 집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은 몇 년 전 시누이가 운영하던 산후조리원의 일손이 딸려 1년여 도와주던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러던 중 시누이가 사정으로 산후조리원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시누이뿐만 아니라 남편까지 권유하고 나섰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산후조리원의 일이다.

마미스산후조리원을 일년 반정도 운영하던 중 호산부인과의 제의로 병원과 함께 손을 잡고 을 2원에 현재의 장소로 이전하여 '호호산후조리원'을 개원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먼저 운영하던 산후조리원이 비좁고 시설이 열악해서 금년에 계정된 소방법 등으로는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을 상황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걸음 앞서서 이곳으로 이전하게 하셨던 것이다.

출산 후의 산모들은 몸과 마음이 민감해져 있고, 아기들 또한 병균에 예민하다. 이들을 돕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15여명의 직원들과 함께 일한다는 것이 작은 일은 아니다. 그래서 김민영 집사는 이 일이 기도 없이는 운영할 수 없는 기업이라고 말한다. 주변의 기도의 든든한 동역자들 때문에 매일 매일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한다. 본교회의 목사님 내외분, 남동생 목사님, 시누이 남편 목사님 등 주위의 목사님들의 기도의 힘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고백하며 감사한다.

꿈을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

김민영 집사는 산모들이 편안한 쉼을 통해 회복하여 가정으로 돌아가도록 돕는 것이 소원이다. 그래서 아기와 산모관리에 남다른 열정을 쏟는다. 경력 있는 전문 간호사들을 배치해 아기를 세심하게 돌볼 뿐 아니라, 산후에 산모의 건강회복을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피부마사지, 산후 스트레칭, 산후 기체조, 음악과 함께 하는 산모교실, 공작교실 등 매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산모들의 회복을 돕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산모들이 흡족해 하지 못할 때 가장 힘들다고 그 마음의 어려움을 내 비쳤다. 때때로 예민한 산모나 가족의 항의를 받아야 할 때도 있다. 직원을 관리하는 문제에도 종종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사탄이 하나님의 기업이 성장하는 것을 시기하여 넘어뜨리려함을 느끼며 기도하게 된다고 한다.

산후조리원을 시작한 후 동분서주하며 기도하지 못할 때 묵묵히 기도하며, 가정의 일을 분담하여 맡아준 남편이 아니었다면 이 일을 지속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김 집사. 또한 다른 가정의 어머니처럼 자녀들에게 세심하게 보살피지 못하였는데도 순수한 신앙을 지키며 자라나는 자녀를 볼 때마다 감사한다고 한다. 자녀들에게 거룩하게 주일을 지킬 것과 정직하고 우에 있는 삶을 강조한다는 그녀는 교회에서도 주일학교 유초등부 교사로서 맡겨진 아이들을 바르게 양육해야 할 사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다.



김민영 집사는 이 기업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굳게 믿는다. 자신이 원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장되시는 산후조리원이길 원한다. 이 땅에 첫걸음을 시작한 아기들이 언젠가 하나님의 훌륭한 사람으로 세워지며,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산모들에게도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받아기를 기도한다. 앞으로 산모들이 이곳에서 주일에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통해 모친이 행하셨던 것처럼 목회자를 섬기는 삶을 살고 싶다는 소박한 꿈이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고 싶다는 김 집사, 그녀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본다.

[취재 최영조, 사진 김미경]

춘천 목회자 축구연합단(포이멘)
단원모집
■ 회장 : 김 병 천 목사(남산교회) 019-312-8291
■ 총무 : 한 덕 현 목사(새한빛교회) 016-406-5791
■ 회계 : 박 상 흥 목사(거성교회) 016-971-7133
모임시간: 매주 월요일 오전 6시30분 ~ 10시
모임장소: 공지천 잔디구장

세경볼링센타
매주 토요일 오후2시~3시30분 무료강습


대표 이 용 운 집사
(온누리장로교회 · 춘천시볼링협회 전무이사)
위치 춘천시 석사동 694 세경상가(지하)
☎ 261-6184~5 / 011-9969-6702 cafe.daum.net/ccbowling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한 해(年)가 파발곤보다 빨리 지나가며 달아나 버리고, 베틀의 북처럼 빠르게 지나간다. 연말이 다가오니 교회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진솔하며 작정할 것이다. 춘천기독교연합회 총회도 11월에 있을 것이다. 주님의 일이 성취되고 입증되길 바란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기에 복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부른다(고전1:2; 12:2-3). 그러므로 교회에 함께 오며(고전11:18), 온 교회가 한 곳에 함께 모이는 일(고전14:23)이 허다하다. 기도로 모이기도 하고(행12:12), 먹으려고(주의 만찬) 함께 모이기도(고전11:33)하며, 에베(교회를 세워주는)하기 위해서도 모이며(고전14:26), 보고하기 위해 모이며(행14:27), 의논하러 모이기도 한다(행15:6).



모이면 논쟁도 있고(행15:7), 파당(분열)도 있고(고전11:18-19), 불평(행7:1)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에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롬14:7-9 엡5:22-23). 의회에서 회의에 대한 규칙도 숙지하고, 모임에서 우리는 "이는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이심이라."(고전14:33)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할지니라."(고전14:40)는 말씀들을 기억해야 한다.

욥기에는 욥의 친구들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대화하지만, 욥에게 세 친구는 고발자이며, 사탄의 대변자와 같았고, 만장일치적 의견이었지만, 욥에게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신 분을 알리진 못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보혜사), 곧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서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리라."(요15:26-27)는 말씀처럼 교회 최초의 공의회라 할 수 있는 모임에서 성령님과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이렇게 함이 좋을 듯하다고 말하며, 그 서신을 읽은 교회는 위안을 얻고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다(행15:28-31). 그러나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처럼 사람들의 권리, 정의로 하나님의 침되심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아멘이 안 되며(고후1:14-24), 하나님의 일을 망치게 될까 염려된다(롬14:17-23). 또한 육신적이어서 오직 논쟁하기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치 아니하고(롬2:8) 하나님을 거슬러 말하는 모든 거친 발언(their hard speeches 유1:15)과 주권을 업신여기며 위엄들을 비방하는(유1:8; 벧후2:10-12; 마23:2-4; 행23:1-5) 이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임에 얼룩과 흠집이 없기를 바란다.

사소한 것 몇 가지를 말하고 싶다. 초대교회에는 의논 결과의 서신이 있었고(행15:30), 과부들을 구제하기 위해 과부의 규례가 있었고, 과부의 명부가 있었다(딤전5:9). 기록으로 남기는 이런 영성이 교회들에 있었으면 한다.

젊은이들이(어찌 젊은이들뿐이겠는가?) 의논에서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니 당신들이 할 말을 찾을 때에 당신들의 변론에 귀를 기울였노라."(욥32:11; 약1:19-22)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젊고 당신들은 매우 늙었으므로 내가 두려워서 내 의견을 감히 보이지 못하였노라."(욥32:6)는 **자기를 낮춤**이 있었으면 한다. 그러나 큰 사람이라고 반드시 거룩한 것이 아니요 노인이라고 판결을 깨닫는 것이 아니다(욥32:9).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는(벧전4:11) "이는 내가 아첨하는 호칭 붙이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만드신 이가 나를 속히 데려가시리로다."(욥32:22)는 남자다움이 있어야 한다(고전16:13; 사46:8).

큰 사람들에게, 거룩한 사람들은 **"너의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네가 베푼 호의가 마지못해서 하는 것 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났던 것도, 네가 그를 영원히 받아들이기 위함일 것이니"(몬1:14-15; 고전16:12처럼 의견을 제시했으면 한다.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린다.

"너희 중에 지혜로우며 지식을 겸비한 자가 누구냐? 그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생활방식에서 나오는 행위들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모진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이며, 관능적이며, 마귀적인 것이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느니라.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고, 부드럽고, 대하기가 쉬우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차별과 위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안에서 그 씨가 뿌려지느니라."(약3:13-18)

"끝으로 형제들아, 진실한 것이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이 무엇이든지, 올바른 것이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이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이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칭찬이 있든지, 이러한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빌4:8)

[글 편집부 이영규]

예 향

믿음을 점검하라

어느 목사님이 독일의 매우 큰 교회를 방문하여 교회 관계자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인 수가 얼마입니까?" 물으니 교회관계자가 우물쭈물하더니 "재적 교인이 약 3천명쯤 됩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면 실제 모이는 수는 얼마입니까?"라고 물으니 "사실은 120명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독일 관계자가 되물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어떠합니까?" "그래도 한국은 재작에 희망은 나옵니다" 옆에 있던 독일의 다른 분이 말합니다 그래도 "우리 독일에도 실제 2천명 이상 모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 교회는 많이 모입니까?" 그분의 대답인즉 뜻밖이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예수를 믿거든요" "아니 예수 믿지 않는 목사님도 있나요?" "그럼요. 예수 믿지 않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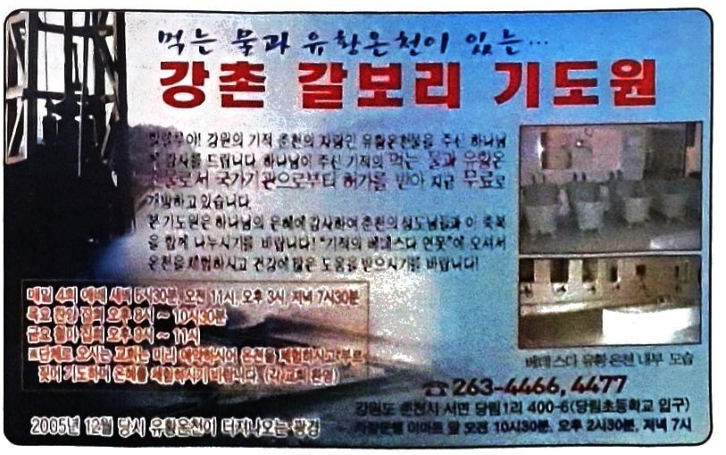
<후원자를 찾습니다>

농 협 301037-52-193771 조영춘
Y신협 04073-13-016959 조영춘
1구좌 5천원, 2구좌 1만원
(성시화를 위한 구독헌금에 동참합시다)

[성시화 후원자 명단]

강촌감리교회	나눔성결교회
늘사랑 교회	동신장로교회
순복음춘천 교회	순복음하나교회
사암중앙교회	소양성결교회
소양제일성결교회	세인교회
새순성결교회	순복음열린 교회
서부감리교회	석사감리교회
온누리장로교회	예광침례교회
주찬양교회	중앙장로교회
춘천일신교회	춘천동부교회
춘천명성교회	춘천북부교회
춘천사랑의교회	춘천안디옥교회
춘천중앙감리교회	평화감리교회
춘천제일장로교회	춘천제일감리교회
한빛장로교회	천일현수막
베바타트(춘천지회)	엔투어
쇼인테리어	디티피아
강원기독문화연구소	김 기 태
국민일보춘천지사	김 준 언
김 길 홍	김 현 철
김 영 명	민 병 업
박 동 환	성 기 온
신 성 균	신 종 철
안 미 애	안 정 숙
엄 필 남	오 홍 수
이 국 정	이 용 규
이 원 기	이 원 영
이 관 호	이 학 규
이 병 언	장 기 영
정 찬 복	조 은 제
최 경 용	최 상 호
최 치 공	한 희 현
황 병 친	허 순 영
홍 성 운	홍 순 복





포·토·에·세·이

감사를 드리자



시. 서형석

감사를 드리자

받을 때는 치마폭 넓게 펴고
드릴때는 뒤돌아서서 작은 것만 고른다

은혜에 헤엄치면서
감사에 목말라 하는구나

가진 것이 많아
고르기에 고민하는 네 손이
어쩌다 불행하게
병든소 잡았다면

갈퀴질 해도
잡을 것 없어
허우적 거리는 날이 오리니

빈 손으로
행복해 할 날을 위하여
감사를 드리자

아름다운 이야기

"작은사랑 아름다운 세상 춘천연탄은행"
Small Love Wonderful World



정 해 창 목사(춘천제자감리교회)

성경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롬12:15)는 말씀이 있다. 우리가 행복한 때 불행한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기뻐할 때 슬퍼하는 사람을 돌아볼 수 있고, 우리가 가졌을 때 없는 사람을 배려할 수 있다면 우리 사회는 더욱 따뜻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다. 세상이 외롭고 힘든 것은 세상이 각박하고 냉랭하기 때문이 아니라 함께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춘천연탄은행은 연탄 한 장의 작은 사랑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소박한 심정을 가지고 개원하지 3년이 되었다. 지난 3년 동안 춘천 전 지역 1,600가정에 16만장의 사랑의 연탄을 배달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나눈 연탄 한 장 한 장은 단지 어려운 이웃을 돕고, 그들의 차가운 방을 덥히는 난방수단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춥고 외로운 마음을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작은 사랑의 빛이 되었다. 왜냐하면 연탄 한 장 한 장 속에는 어려운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따뜻한 세상을 만들려는 정겨운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가득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연탄을 나눌 때마다 힘들고 어렵지만 뜨거운 감동과 은혜를 받고 마음이 행복해진다.



사실 연탄 한 장으로 춥고 냉랭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은 감상적인 도전인지 모른다. 이 도전은 세찬 바람 앞에 작은 촛불처럼 미미한 것이다. 그러나 이 촛불이 모이지면 온 세상의 어둠을 물아낼 수 있고 밝고 따뜻한 세상을 이룰 수 있다고 믿기에 우리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진저리 치는 듬살'을 기꺼이 앓고 있다. 그리고 이 사역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 마냥 즐겁고 행복하다. 지난세월 돌아보면, 땀 흘리며 가파른 오르막길을 올라야 할 때도 있었고, 두려움에 떨면서 위험한 내리막길을 내려가야 할 때도 있었다. 외로이 들판을 가로질러 갈 때도, 해 떨이진 어두운 길을 걸어야 할 때도 있었다. 비바람 눈보라치는 사나운 길을 헤쳐 나갈 때도 있었고,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은 힘든 길을 가야할 때도 있었다. 그때마다 손을 잡아 일으켜주고 용기와 힘을 주신 고마운 분들이 있었는데, 연탄은행을 사랑하는 후원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이다. 어린 초등학생부터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까지 그분들의 사랑의 마음 하나하나를 결코 잊을 수 없다. 그분들은 우리가 가파른 언덕길을 넘어갈 때면 어김없이 나타나 어기여차 넘겨주었고, 사나운 파도 바다라면 어기어차 건너게 해주었다. 그분들이 계셨기에 춘천연탄은행은 외롭지 않았고 늘 기쁨으로 사랑을 나누며 이 땅에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연탄은 타고 나면 하얀 재만 남지만 따뜻한 사랑만은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우리는 매번 연탄을 나눌 때마다 가슴으로 절절히 느낀다.

[문의:033)257-7141 / 010-3377-7141 http://cbb.or.kr/]

행사안내

▣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 ▣

한국복지재단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소장 홍창표)에서는 10월 31일(화) 오후 2시-5시에 기관 강당에서 복지대상자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 제공과 함께 사회복지사의 임상능력 향상을 위한 권역별 case conference를 실시하였다.

이번 컨퍼런스는 한국복지재단 산하기관 중 서울·경기·강원 권역의 16개 사업기관(지부, 복지관,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이 참석하여 사례발표 및 슈퍼비전과 토의의 시간을 가졌다.

문의: 국번없이 1391, 244-1391-2

▣ 월드비전 ▣

♣ 학교사회사업
1. 일시: 11월 4일(토) 09:00-12:30
2. 장소: 남춘천중학교 3학년 중
3. 내용: 빈별 토론과 모둠활동을 통한 학교폭력에 대한 개념 습득 및 예방

♣ 자원봉사자 니들이
1. 일시: 11월 7일(화)
2. 장소: 정선 만둥산 억새꽃축제, 정선 5일장
3. 대상: 복지관 자원 봉사자 40명

♣ 부모교육
1. 일시: 11월 9, 16일, 23일(목)
2. 장소: 복지관

♣ 김장지원서비스
1. 일시: 11월 13일(월) - 30일(목)
2. 후원: KT&G, 지역 교회
3. 대상: 재가어르신 102가정 및 등록아동 217가정

♣ 청소년멘토링종결캠프
1. 일시: 11월 24일(금) - 25일(토)
2. 대상: 멘토 13명, 멘티 12명
3. 문의: (033)254-7244

건강상식

▣ 허리가 삐거나 잠을 잘못 잤을 경우 ▣

• 허리부위에 서암통2호나 6호를 붙여 놓는 것도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A 1, 3, 6, 8, 12



11, 9, 20, 21, 22

사랑에 빛 월드비전 World Vision
· 한사랑(1만원) · 배사랑(2만원) · 늘사랑(3만원)
월드비전 후원계좌 : 농 협 240-01-078120
☎ 254-7244 조 흥 515-01-038052
우체국 210022-01-001322
예금주 월드비전

agapia 아가피아 강원지부
하나님의 인재를 길러내는 학교 자녀에게 비전을 갖게 하는 학교
아가피아 스쿨

신앙과 교육의 통합 AGAPIA스쿨 우등생을 뛰어넘어 인재로 아가피아 스쿨
▶ 매일하는 학습 구성으로 독서학습능력을 기릅니다.
▶ 유용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합니다.
(국내 최초 e-런닝 독서학습, 듣기학습 등)
▶ 인격과 비전을 기르는 학습을 지원하고 관리합니다.

	매일학습	주간학습	월간학습
아가피아 교과	기상학습 영성학습 성찰학습	독서/독해학습 토론/논술학습 듣기학습 강의학습	리더십학습 멘토학습 찬양학습 프로젝트학습
학교 교과	초등 / 중등 / 고등과정 온라인 스쿨		
영어 교과	1. 유치원과정(7-8세) : EF교과/미국교과 2. 초1-2(미국국정교과) : 영어 수학 과학 사회 3. 초3-중3(미국국정교과) : 영어 수학 과학 사회테마 프로젝트		

흔히 인격을 갖춘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인격만 있고 실력이 없으면 좋은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실력이 출중하지만 비전이 올바르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큰 비전을 품고 있으나 인격과 실력이 미천하면 그의 비전은 말로만 그치는 꿈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훌륭한 리더, 탁월한 인재는 인격과 비전과 실력이 고루 갖추어진 사람입니다.
바른 꿈을 품고 인격을 함양하며 실력을 키워나가는 사람.

아가피아 스쿨은
영성을 갖춘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리더로 키우는 방과 후 대안학교입니다.

■ 상담 및 문의 033-241-9939 (사무실-춘천 베드로선교센터 5층)
011-372-9100 (김성호 목사-아가피아 강원 지부장)
011-9797-4217 (최승만 목사-강원 아가피아 스쿨)

사 설

지금은 사랑의 실천이 필요한 때이다.

박 상 호 목사
본보편집장 춘천제일장로교회 담임

성도들에게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 손들어 보라고 하였다. 의외로 할아버지 한분이 혼자 손을 드셨다. 그래서 "아니 할아버지는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셨습니까?"했더니 할아버지는 엷글 쌔 하나 변함없이 당연하다는 듯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아니야 옛날에는 많았는데 다들 죽었지." 이 이야기를 통하여 가르치고 싶은 내용은 이 할아버지의 미움으로 이웃이 다 죽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서 자칫하면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넘기기 쉬운 교훈이 하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미움은 이웃을 죽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동시에 죽인다는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할아버지는 전에는 미워할 감정이 있었으나 이젠 그 감정도 죽은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움으로 자신과 이웃들을 파괴해 왔는가? 미움은 가장 강한 독이다. 미움의 독이 우리 안에 퍼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경체계를 파괴해 버린다. 그러나 사랑은 살리는 것이다.

벌써 한 해가 마무리 되어간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워했고 죽였는가? 그리고 혹 우리 자신은 죽어있지나 않은가? 검토해 볼 필요가 절대적이다. 혁신도시 문제로 인접지역과 다소 블편스럽더니 외국어 고등학교 문제가 또 띠오른다. 더욱 혼란스러운 것은 북핵 실험으로 오는 파동이다. 북방정책의 한 번지가 어디에 있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나? 햇빛정치의 참모습이 무엇이며, 서방국가들이 요구하는 북방정책과 한국정부가 말하는 북방정책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인가? 이는 엄청난 갈등을 불러일으킨다.

미움은 모든 것을 파괴하고 죽인다. 그러나 사랑은 모든 것을 살린다. 어떻게 하는 것이 참사랑인가? 무기 만들 돈이나 대어주는 것이 사랑은 아니다. 참 사랑은 영혼이 잘됨으로 범사가 잘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다.

성도들이여! 북한이 원자탄 실험을 할 때, 우리도 북음으로 만들어진 사랑의 원자탄을 실험하자.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과 같은 성령의 대 폭발을 일으키자!

우리는 침으로 기도할 때이다. 이 가을에 전도운동과 기도 운동을 일으키자. 성령 충만한 능력을 입어 민족 복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이 민족을 죽음에서 건져내자. 지금은 참 사랑의 실천이 필요한 때이다.

❀ 알려드려요

◆예스컴(구 예수사랑운동)
1) '목동모임'
일시: 11월 4일(토) 오후6:30
장소: 베드로선교센타 5층
문의: 244-5400/010-9287-5170 [cafe.daum.net/holykids]

◆한국대학생선교회(C.C.C.)
1) '순장교육'
일시: 11월 6(월) ~ 9일(목) 장소: CCC 아카데미하우스
2) '부모초청 전도 집회'
일시: 11월 11일(토) 오후3시 장소: CCC 아카데미하우스
내용: 믿지 않는 부모님들을 초대해 복음을 증거
3) '추수감사예배'
일시: 11월 17일(금) 오후6:50 장소: CCC 아카데미하우스
문의: 254-5776

◆예수전도단
1) 춘천 회복을 위한 화요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6:30 장소: 춘천동부교회 소예배실
대상: 연령, 교단을 초월한 모든 그리스도인
2) 브르스길라(중보기도) 모임
춘천과 예수전도단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주 월요일 오후 7시~9시 장소: 춘천지부 사무실
대상: 가정주부(관심있는자매님)
문의: 252-1128 [http://town.cyworld.com/ccywam]

◆IVF
1) '한국IVF 50주년 전국대회'
일시: 11월 4일(토) 오후1시 장소: 분당 한렘두야교회
대상: IVF학생 학사 이사 간사, IVF 를 사랑하시는 분 모두
2) '춘천선교단체연합 간사모임'
일시: 11월 1일(수) 장소: 삼악산
3) '소명세미나'
일시: 11월 6, 13, 17, 18일 오후6:30 대상: 4학년 및 리더
장소: 춘천 IVF회관 문의: 252-5200

◆JDM
1) '대학별 MT'
일시: 11월 3일(금) 장소: 대학별 지정된 장소
2) 'KDTI 졸업식'
일시: 11월 25일(토) 장소: WDTI
3) '한국간사회'
일시: 11월 30일(목) ~ 12월 1일(금)
장소: WDTI
문의: 252-3192 / 011-9058-3192

◆ 어린이전도협회
1) '새소식반 교사강습회'
일시: 9월 11일~12월 4일(매주 월 12주간) 오전반 10시, 저녁반 7시
장소: 베드로선교센터 5층
문의: 253-1443, 242-8291 [http://cafe.daum.net/cefchl]

◆GBT성경번역선교회
1) '26회 캠프위클리프 신청'
일시: 2007년 1월중 3주간 마감: 11월말까지
장소: 인도네시아 파푸아 및 대전침례신학교
2) '선교특강'
일시: 11월 3일(금) 오후7시 장소: 예담교회(벨몽드 옆)
강사: 정민영 선교사(WBT국제이사)
3) '전국간사 정기회의'
일시: 11월 8일(수) ~ 9일(목)
장소: GBT본부 / 진행: 이성우 선교사
4) '위클리프 세계기도의 날'
일시: 11월 10일(금) 오전10~오후5시
장소: 서울 삼광교회 / 진행: 권성찬 선교사
5) '위클리프스쿨 수료식'
일시: 11월 27일(월) 오후7시
장소: 강남은누리교회(퇴계등 우성A 앞)
말씀: 김성욱 선교사(인도네시아)
문의: GBT춘천지부 033)252-3927
김대원 간사 011-367-6085[033]@gbt.or.kr

◆태권도선교 시범단 훈련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9시~11시 장소: 경원대태권도장
문의: 263-6022, 011-9791-6055

◆몸소리워십댄싱선교단 훈련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8시~9시 장소: 경원대태권도장
문의: 263-6022, 017-374-2440

◆구봉산 산기도회
일시: 매주 수요일 오전11시, 금요일 오후10시
장소: 구봉산 기도공원(만천리 공무원 연수원 뒷산)
문의: 256-7579 018-315-7579
지광이선교회(신광교회 유근일 목사)

◆성결교단 창립100주년 및 성결인대회
일시: 2006년 11월 12일(주일) 오후 3시 - 6시
장소: 춘천중앙성결교회
대상: 춘천,원주 홍천,양구,인제 관원의 성결인
내용: 1부 예배, 2부 성결인대회 및 축하공연

◆춘천홀리클럽
'성시화창단 창단예배 및 기도회'
일시: 11월 13일(월) 오후7시 장소: 석사감리교회
문의: 성시본부 256-1260
이학규 017-370-4831, 김영명 011-9792-5775

◆춘천교역자연합회 총회
일시: 11월 9일(목) 오전11시 장소: 평화감리교회
문의: 최현묵목사 011-9792-8045

◆성시중보기도 모임
일시: 매주 월요일 오전 6시30분
장소: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사무실(와이신협3층)
문의: 256-1260

◆UBMK(울란바트르 선교사 자녀학교)
헌신한 교사 및 후원자를 찾습니다.
문의: 이영규 목사 019-9224-0690, 243-0691



중학교과서
DTPi 디티피아
- 인 쇄 : 명함, 스티커, 전단, 포스터, 카다로그, 각종봉투, 서식, 달력
- 판 촉 : 행사용 현수막, 윈드배너, 현수막, 각종판촉물, 행사기념품(타올/우산등)
- 현수막 : 각종현수막, 실사현수막
"우리만이 내일 일이오 전부도 일이 됩니다"
최 상 철 실사 (제일장로교회)
Tel :033.263.5152
Fax :033.242.5121
강원도 춘천시 효자3동 607-2
E-mail: chsch1784@yahoo.co.kr

춘천에서 전국으로, 세계로…
예수향기를!!
교회현수막 전문
www.chunill.com
1001design@hanmail.net
"천일디자인"만 쳐도 됩니다.
천일기획(디자인)
T.255-5722 F.256-5722

광 고

춘천홀리클럽 기도회



제7회 춘천홀리클럽(회장:이학규장로) 기도회가 10월 16일(월) 오전6시 30분 강촌감리교회에서 열렸다. 강촌교회 김성호 목사는 "하늘이 열리면서"를 주제로 말씀을 전하였고, 행복한 가정, 건강한 사회, 춘천 성시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힘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1회 신학강좌



감리교 춘천지역장로회는 10월 16일(월) 오후6시 춘천제일감리교회에서 창립예배를 드리고, 박종천 교수(감신대학원장)를 강사로 초청해 "회개해 새창조"란 제목으로 평신도지도자를 위한 제1회 신학강좌를 열었다.

춘천포럼 발기모임



춘천포럼 발기위원회가 10월 17일(화) 오전7시 춘천성시본부 세미나실에서 정관검토, 인적구성, 창립준비를 위해 모였다.

소망의 마을 입주식



헤비타트 춘천지회(이사장 김창수감독)는 2006년 10월 21일(토) 오전10시 춘천 소망의마을 입주식을 가졌다. 사랑의 집은 세대별 20여 평 규모로, 춘천지회는 이날 백모(35·춘천시 효자3동)씨 가정 등 무주택 가정 4세대에게 집 열쇠를 전달했다. 앞으로 춘천지회는 2개동 8세대 규모의 주택을 오는 2007년까지 또 지을 계획이다.

2006 춘천선교대회



춘천 성시화를 위한 "2006 춘천선교대회"가 춘천기독교연합회(회장:박상호목사)와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주최로 10월 8일~25일 부흥회와 세미나, 찬양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선교대회 연합부흥회는 10.8(주일)~11일(수) 오후7시 석사교회에서 이동현목사(광주평화교회 담임)를 주강사로 "거룩한 꿈"이란 주제로 교회의 연합과 일치에 대해 말씀을 전했다.



◀기도전략세미나(주관:예수전도단)가 10월 16일(월)~19일(목) 오후7시 나눔교회에서 열렸다.

춘천시 장로교연합부흥성회



춘천시 장로교연합회(회장:지용찬목사)는 10월 29일(주일)~11월 1일(수) 오후7시 춘천동부교회에서 연합부흥성회를 열었다. 29일(주일)에는 오덕교총장(합동신학대학교대학원)을 강사로 초청해 종교개혁주일기념예배를 드렸고, 30일(월)~11월 1일(수)에는 서달수목사(신천중앙교회)를 초청, 영적전쟁, 순종의 축복을 주제로 부흥회가 열렸다. 또 31일(화), 1일(수) 오전 10시30분에는 제직과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CBS운영위원 조찬기도회

CBS운영위원회는 10월 20일(금) 오전7시 회천제일교회에서 위원장 김창수감독, 총무 하기협목사를 비롯 8명의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조찬기도회를 열고, 춘천성시화와 교회연합, 기독교방송국 발전을 위해 힘심하여 기도하였다.

춘천남지방 연합부흥회

춘천남지방은 10월 22일~25일(수) 동원감리교회에서 새벽5시, 오전 10시30분, 오후7시30분 하루 세 차례 고달수 목사(서울 담심리교회)를 강사로 초청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란 주제로 '2006년 연합부흥성회'를 열어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다.

장로연합회 총회



춘천장로연합회는 10월 26일(목) 오후7시 광장감리교회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이무식장로(석사교회)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아동학대예방인형극 '신 콩쥐팥쥐'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소장:홍창표)은 10월 약1달간 9개 시군(춘천, 횡천, 홍천, 영월, 평창, 인제, 횡성, 양구, 철원)을 순회하며 아동학대예방인형극 '신 콩쥐팥쥐' 공연, 27일(금) 철원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공연은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나아가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계기가 되고자 마련되었다.

예스컴 간사 헬퍼 임명식



예스컴(대표:김선희)은 10월 28일(토) 오전10시 베드로선교센터 5층 추수홀에서 간사 3명(한승현,윤현락,이성희)과 헬퍼 2명(유한나,이미연)의 임명식을 가졌다.

소양댐 환경 그린티어링 환경 그림그리기 대회



소양호 환경연구소에서 주최하고 춘천YMCA 주관으로 '2006 소양댐 환경 그린티어링 및 그림그리기 대회'가 10월 28일(토) 오전10시 소양댐에서 열렸다. 이날 어린이 500여명을 초청하여 소양강댐 걷기대회, 환경 그림그리기 대회, 자연환경에 대한 소중함과 에너지 절약에 대한 필요성을 재미있게 구성한 마당극 공연을 선보였다.

구봉산 기도공원 기도외원 모집

일 시 : 매주 수요일 낮 11시 금요일 밤 10시
장 소 : 만천리 공무원 연수원 뒷산(약수터)
연락처 : 신광교회(지팡이선교회) 유근일 목사
• 033) 256-7579, 018-315-7579 (언급,사용료없음) •

회원은 바른신앙 바른교회 운동에 뜻을 같이 하는 누구든지...

등산으로 건강찾고 기도로 은혜찾아 모임으로 사명찾자

"손잡고 함께 가는 여러분의
와이신협이 되겠습니다"

본 소 : 033-255-1007
1층 Y신협, 3층 기독교연합회, 4층 CBS
강남지소 : 033-261-1002
퇴계현진에버빌 2차 옆

춘천와이신용협동조합

춘천성시신문

편집위원 : 박상호 조영춘
최영조 최상도
정재호 이영규
권기친 김춘배
김미경

원고 투고 및 광고 문의
200-080
춘천시 운교동 174-3 Y신협3층
춘천성시신문사
대표전화 : 033)256-1260
FAX : 033)257-1260
011-361-2004
010-7347-9004
010-3118-9355